

# 광주 군공항 이전·전남 흑산공항 건설 '空約' 될라

## 「文 정부 출범 3년」 지역 공약 불이행사업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담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여전히 진통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도 난항 예상  
서남권 해양에너지 플랜트산업 진척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공약 중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이행 사업은 적지만, 주요 현안사업은 겹겹으로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선데 달린 것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두드러지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공항 이전·광주형 일자리 등 뜬구름 잡다 끝나=불이행 또는 추진으로 사업으로 분류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지원은 총 600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만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소요재원을 '기부대양어' 방식으로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부대양어' 방식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 조성비용부터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이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현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군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결국 광주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4만여 채에 이르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지원금도 국방부와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 등이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전비용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약속한 공약은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없지만, 헌법전문수록 개헌안의 국회 통과 무산 이후 담보 상태다. 광주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향후 관련 개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야당과의 협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총 사업비 1682억원 중 국비 1116억원이 투입되는 '전장부품산업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업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2020년 국비사업으로 미래자동차 편안전 기술개발사업을 건의했으며, 지난달엔 2021년 국비 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 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완성형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보육, 체육, 교통, 교육, 주거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1142억원의 국비지원을 약속받았지만, 해당 사업이 노동계의 잦은 이탈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원 여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비 35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도 장성군과 광주시의 협업으로 지역 내 유치가 유력시 됐지만, 타 지역들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센터 건립방안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한 법령개정, 국비확보, 광주와 장성의 경계인 광주연구특구 내 입지 확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 흑산공항은 5년째 발목=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사업 가운데 자연 및 애로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9건이다. 대표 사업은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다. 섬 주민 4600여명의 교통 편의를 돕고 연방군 45만명이 찾는 관광명소 흑산도를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공항 부지와 규모는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원 54만7000㎡다. 연장 1160m, 폭 30m짜리 활주로 건설을 포함, 모두 183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조기 건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항 건설을 위해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개발·보전 논쟁으로 5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결국 지난 2011년 정부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난 2015년 '흑산공항 건설계획'을 고시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흑산공항 건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및 민선 7기 이후 흑산공항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반면 흑산공항과 함께 추진된 울릉공항은 올 하반기 착공, 2025년 개항 일정으로 순항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남해안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산업 관련 세부 공약사업도 3건이 진척이 없다. 신안 등 서남해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상 풍력 고압직류송전망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공약 사업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배후항만 개설 사업도 진척이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라 경험 부족 등 내부적 지원 사유도 있다"면서도 "정부 의지가 강하다면 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공약의 세부 사업인 해양생태마을 조성,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고대 문화권 개발사업이 지연 사업으로 분류됐다. 나주·화순·장흥 생물의약산업 벨트 구축 공약의 하나인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조짐에 당정청, 코로나 고강도 대응 나서

정 총리 "검사율 절반이 채 안 돼" 이해찬 대표 "안 오면 찾아갈 수밖에" 청, 예술인·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추진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조짐에 여권이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협조가 늦어질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 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태원 유흥 시설을 이용한 분과 지인은 바로 검사장으로 와달라"면서 "만약 자진해서 안 오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고강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당정청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약속했다. 일부 클럽 방문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배경에 성 소수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인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민석 정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전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는 의의 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文 정부 가장 잘 한 건 보건·복지」 34.3%

리얼미터 조사 ...향후 2년 경제 주력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잘 한 분야로 '보건·복지'가 뽑혔다. 11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18

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잘한 분야'로 '보건·복지'를 꼽은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통일·외교·안보가 14.4%였고 검찰개혁

(10.4%), 경제·일자리(5.1%), 부동산 안정(1.8%) 등이 뒤를 이었다. '없음'은 25.0%였다.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2년 주력할 분야'로는 '경제·일자리'가 4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 개혁(25.2%), 부동산 안정(10.6%), 통일·외교·안보(7.4%), 보건·복지(3.4%) 순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1566-9988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1566-9988